

2012년 5-6월호
(통권 219호)

해나리

꿈과 사랑을 가꾸는 목5동 성가정 성당

해는 태양(陽)·나리는 내(川)의 옛말로, 해나리는 하느님의 빛이 햇빛처럼 내리는 우리 고을 양천을 의미합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그날그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과 의 일치할 가능하게 하고
이웃에게까지 넘쳐 흘러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애덕의 일은
하느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 마더 데레사 -

한눈에 보기

여는 페이지	02	
해나리 열어보기	03	
연재합니다	04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30)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08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이주하 스테파노 제1보좌 신부님
	10	양천지구 지구장 신부배 족구대회를 다녀와서 · 김순홍 다니엘
축하합니다	11	박광원 세례자 요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축하식
특집	12	성모의 밤
	15	예비자 교리반 서울 순교사적지 순례
	16	세례식
글마당	18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김숙희 마리안나
	20	은빛대학 탐방
	22	해나리 은빛대학 수학여행기 · 김종선 스테파노
	24	저는 외딴 교우입니다 · 신보현 엘리사벳
	25	일치의 날 행사에 다녀와서 · 김채현 클라라
	26	본당 설정 25주년에 치러진 일치의 날 · 백영원 안젤라
	28	일치의 날 초등부 대상 · 박성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29	일치의 날 본당이 하나가되다 · 박민아 올리아나
	30	그날 · 김선옥 미카엘라
특집	32	본당 설정 25주년 일치의 날
성당소식	36	사진으로 보는 성당소식
소공동체 모임	39	멋진 2구역 2반 파이팅 · 조효주 아녜스
해나리 다시보기	40	본당 설정 25주년 해나리 다시보기
글마당	44	달림이들의 새로운 일탈 도보 성지순례 · 안병정 요셉
전입교우 명단	45	본당의 살림살이 전입교우 명단
광고	46	

발행인 박광원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
 편집 백명애(마르가리타), 이성재(마리안나), 안신해(가브리엘라), 이현정(소화데레사)
 사진 황경희(엘리사벳), 이승환 대건안드레아
 발행일 2012년 5-6월 (219호)
 전화 2644-1100 FAX 2644-9100
 E-mail haenari0330@hanmail.net 홈페이지 www.mok5.com(한글주소/목5동성당.com)
 표지사진 성당의 야경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 (30)

— 신은 우주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이병철 회장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은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하느님을 보는 일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아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제 전공이 아니지만, 그래도 호기심 때문에, 저의 개인적 관심 때문에 언젠가는 읽게 되리라는 마음에서 사 놓은 책들이 제법 됩니다.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스티븐 와인버그의 [최초 3분], 여러 작가들이 함께 쓴 [21세기 다윈 혁명], [과학, 우주에서 마음까지], 윌리엄H. 쇼어가 엮은 [생명과 우주의 신비], 프란츠 부케티츠의 [진화는 진화한다], 데이비드 솔론 윌슨의 [진화론의 유혹]……

저의 짧은 지식으로 우주는 137억 년 전 소위 ‘빅뱅’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0억 년 전, 또는 150억 년 전, 200억 년 전이라고, 설이 여러 가지였습니

다. 최근 137억 년 전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로 위아래, 옆으로 뒤로 사방으로 펼쳐졌으니 우주 공간은 274억 광년의 거리로 펼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은 사방으로 퍼졌으니 반지름이 137억 광년이 될 테고, 지름은 그 두 배가 되는 만큼 274억 광년의 거리가 되는 셈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밤하늘을 봅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희미하게 여기 저기 있습니다. 지상의 불빛이 적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별들이 찬란하게 비추겠지만, 그래도 그 광활한 우주의 대부분은 어둠입니다. 아마도 99.9%는 어둠일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을 스스로 내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항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태양보다 더 밝은 별도 있습니다. 시리우스나 북극성처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주 대부분은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 있는 공간입니다.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도 1000억 개의 항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단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그 중심을 축으로 한 바퀴 도는데 2억 3000만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억 광년의 거리의 반지름으로 형성된 우리 성단의 2.8억 광년의 거리쯤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태양계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지구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은 태양과 너무 멀어서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지구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우주선을 발사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천 억 개의 별 무리들이 이루고 있는 성단들이 1000억 개 정도 펼쳐져 있다니, 혹시 지금으로부터 수 백 억 광년 저 멀리 어느 곳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지니고 있는 별이 하나쯤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 저 멀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지성을 지닌 어떤 존재들이 또 다른 언어를 지니고 있지만 뭔가 지성적인 존재이면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까무러칠 일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이 지구는 어쩌면 한강 백사장의 수많은 모래 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존재라는 비유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도 점 하나에 지나지 않은 작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일 자체가 믿기 어렵습니다. 우주를 알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알면 하느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질듯 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창세기가

표현한 대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기고,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 1,1-27 참조)

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작가의 외침이 그냥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 4-5)

우리는 우주의 크기에 놀라지만, 우주의 정교한 운영을 알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따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돌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혜성이 궤도를 침범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죽어가는 별뿔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들도 수 없이 많습니다. 목성은 지구 저 멀리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향해 오는 운석들을 막아주는 방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벌써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지구는 궤도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에 따라 꽃이 피고 집니다. 해마다 나무의 나이테가 자랍니다. 그런 걸 그저 우연이라고, 자연이라고, 저절로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마치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찍이 실학을 살려고 했던 정약용 선생님은 그의 저서 [주교요지]에서 해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저절로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큰집이 있다. …… 작은 집도 절로 되지 못하여, 반드시 건

축한 목수들이 있어야 되거든, 이 천지 같은 큰 집이 어찌 절로 되었으리요? 분명히 지극히 신통하시고, 지극히 능하신 이가 계셔서 만들어야 될 것이니, 목수들을 보지 못해도 집을 보면 집 지은 목수들이 있는 줄을 알 것이지요, 천주를 보지 못해도 천지를 보면, 천지를 만드신 임자가 계신 줄을 알 것이라.”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이고, 흙과 돌은 지각이 없기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중에 지각이 없고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이므로,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이고,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이니,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귀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과 지각이 없는데, 능히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일정한 법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돌아오고, 밤과 낮 덩고 추움이 고르게 나누어져서, 천백 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으니, 지각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에 맞으리오.

분명히 지극히 신명하고, 지극히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곧 천주이시니, 그러므로 물레와 수레가 돌아감을 보면, 저 하늘도 천주가 계셔서 돌리시는 줄을 알 것이라.”

소우주라 불리는 우리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 역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조의 세포로 형성된 인간의 몸입니다. 9만 6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핏줄이 있습니다. 3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화 교신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전

달 속도는 시속 460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억 장을 겹쳐야 1센티미터가 될 수 있는 얇은 겹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얇은 피부로 몸의 불순물을 배출하고, 외부의 균들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340그램 정도의 무게를 지닌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며 피를 공급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는 다음 후손에게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전달해줍니다. DNA에는 알파벳으로 표시될 수 있는 30억 개의 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 전체를 읽으려면 꼬박 31년 걸릴 양입니다. 이 DNA로 말미암아 인간이나 침팬지냐가 결정됩니다. 인간에 속하는 서로 다른 개인을 비교해볼 때 DNA 99.9%가 똑같은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게놈프로젝트 연구를 지휘했던 프랜시스 S. 콜린스는 완성된 유전자 지도를 놓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있던 우리 몸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저는 겸허함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논증을 따라 무신론을 고집하던 앤터니 플루는 완성된 유전자 지도를 놓고 고백합니다. “과학 연구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법칙이 인간보다 더없이 우월한 영, 그 앞에서 초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겸손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확신하게 된다.”

아주 오래전에 솔제니친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들이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을 만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병아리 한 마리처럼 연약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와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조물주를 찬

양하는 글이었습시다.


분명 하느님은 세상에 당신이 존재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흔적을 분명히 남겨두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읽어내고 또 많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제대로 읽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J 루이스의 말처럼 기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에 따르면, 기적이란 전 세계에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령 하느님은 포도나무가 뿌리로 물을 빨아 올린 후 태양의 도움을 힘입어 그 물을 과즙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느님은 이미 노아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매년 반복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커스 신이나 디오니소스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창조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바로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느님은 소량의 곡식으로 많은 곡식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곡물의 신이나 가이아 여신이나 데메트리스 여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의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당신이 창조주이시라는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창조 자체가 그 증명인 셈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그 화가가 훌륭한 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흔적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 기도로 등불을 밝히십시오

먼 곳에서 하느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과 더불어 계십니다.
항상 그분을 뵈올 수 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 하십시오.

등불을 밝히면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테고,
당신이 사랑하는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주하 스테파노 제1보좌 신부님

우화의 강1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춤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혼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혼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자꾸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쉬이 잊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진솔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된 향기로운 술처럼 좋은 친구로 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여기 목5동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가셨듯이, 저도 역시 여기저기 머물다가, 그렇게 정들만하면 다시 나그네처럼 떠돌다가, 여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가벼운 짐을 풀고 낮과 밤이 변한지 벌써 삼 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낯선 이들을 만나서, 조금씩 그 낯설음이 친숙함으로 변하고 친숙한 얼굴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관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느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렇게 저 자신을 스스로 평하자면, 소심하고 진부하고 고집 세고 겁쟁이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난 사

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려는, 착하지도 모질지도 않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이곳에는 선하고 착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좋은 예감이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목5동 성당에 등지를 틀고 잠깐 고여 있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편안하게 머물 것입니다. 해서 다시 짐을 싸고 또 다른 미지의 곳으로 흘러갈 때까지, 반드시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허락된 시간 동안 이곳 사람들,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만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괴로울 때는 함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트고 2년의 세월의 물살을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물을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함께 흘러가듯이, 우리 신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공통 안에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떠날 때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곳에 새록새록 정이 들었습니다. 담장에 이름 모를 담쟁이가 조금씩 올라가듯이, 내 안에 생긴 정도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

양천지구 지구장 신부 배 족구대회를 다녀와서

1-4구역장 김순홍 다니엘

지난 5월 5일 청명한 날씨 속에 신월동에 위치한 양강 초등학교에서 조구만 주교님과 여러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서울지역 제15 양천지구에는 있는 9개 본당(목3동, 목4동, 목5동, 목동, 신월 1동, 신월동, 신정 3동, 신정동, 양천)의 구역장들이 함께한 친선 족구대회가 있었다.

특히 우리 본당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주교님이 우리 팀 선수로 특별 출전하셔서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주교님의 축구 솜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 중에 공격수 위치에서 몸을 아끼지 않으신 주교님의 과감한 공격이 성공할 때에는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큰 박수로 응원하는 등 평소 신자들과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주교님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 팀은 용왕산 족구 동우회의 특별 코칭까지 받아가며 맹렬히 연습하였으나 상대팀들에게 예선

두 경기를 근소한 차이로 내주고 아쉬운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번 외 경기로 치러진 여자 구역장님들의 패널트 킥 경기는 승부와 관계없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 흥겨운 시간이었다.

화창한 봄날 모처럼 흘린 땀으로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의 육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강한 하루였으며, 승패를 떠나 타 본당의 구역장님은 물론 우리본당의 구역장님들과도 친교를 가질 수 있어 즐겁고 행복했던 하루였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위해 함께하신 주임신부님과 참석하신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참가에 의의를 두자는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를 애매한 응원으로 경기 내내 우리를 즐겁게 하신 총구역장님, 이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박광원 세례자 요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축하식

6월 24일 교중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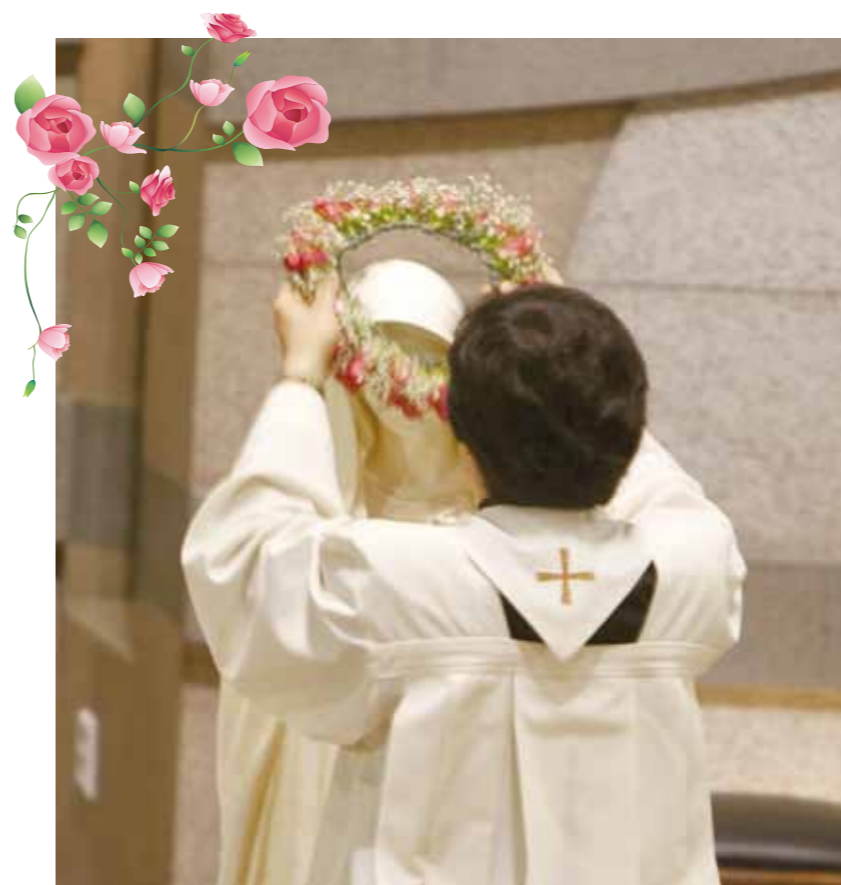
영명축일을 맞이한 박광원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위한 기도 예물	
주요경	7,660
사제를 위한 기도	14,176
목주기도	39,191
희생	3,389
십자가의 길	706
화살기도	13,043
미사영성체	6,150
성체조배	1,124

2012. 6. 24
천주교 목동성당 신자일동



성모의 밤

5월 12일 토요일 특전미사 후
성당 마당 성모님 상 앞 / 대성전





예비자 교리반 서울 시내 순교사적지 순례

일시 : 2012년 6월 10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교 사적지 : 주교좌 명동성당, 서소문 순교성지, 당고개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
 인원 : 화요 오전 오후, 수요 오전 오후, 목요 외딴 교우, 예비자 81명, 봉사자 10명 총 : 91명
 자료 : 최동준 보나벤투라



화요일



수요일



외딴 교우반



세례식

외떡교리 반 / 어르신 반
6월 17일 주일 오후 2시 대성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성가정의 모후Cu, 부단장 김숙희 마리안나



2012 레지오 야외행사는 4개의 여성Cu, 합동으로 감곡성지로 예정되었었다. 그러나 갈매못성지로 변경되어 5월 29일 8시 30분 참가자 310명이 8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출발했다. 나는 그중 5호차의 진행을 맡게 되었다. 선임Cu, 세라피나 단장님의 지시로 우리도 그 궤를 같이하였

다. 출발 전 인원점검은 거룩하신 동정녀pr. 인원 초과, 희망의 모후pr.이 전원 참석하였다. 두 분 단장님의 주송으로 시작기도와 까페나를 바쳤다. 성지에 도착하자 승리의 성모성당에서 11시 30분 미사가 시작 되었다.

갈매못성지의 오 신부님의 강론이 끝나고 미사 참례 후 12시 30분 성지 내 식당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시작한 점심은 염려와는 다르게 질서 있게 순서를 지키는 것을 보고 단원들의 성숙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13시 30분부터 pr.별로 십자가의 길, 성체조배, 기념전시관 관람으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쳤는데 성당으로 오르는 길에 1처씩 오를수록 잔잔한 바다가 숨어 있다가 보이듯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예수성심 상 앞에서 Cu.별로 기념 촬영을 하고, 다음 행선지인 대천 해수욕장으로 30km 더 이동하였다. 갑작스러운 행선지 이동으로 한 팀은 제7처까지밖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워했다.

15시 드디어 해변에 도착하였다. 바다를 거닐어 본 게 얼마만인가? 쪽빛바다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가슴이 탁 트이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에 바닷물에 발을 담기도 하고 맨발로 한가롭게 걷기도 하였다. 부산 바다에 익숙한 나는 마음속으로 배호의 노래'파도는 영원한데... 내 사랑은 부서지고 물거품만 맘을 도네' 하면서 파도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작년에 하늘나라로 간 요셉과 76년 5월 29일 결혼한 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피아 단장님이 바다와 사랑에 빠졌는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걷자면서 '외손주 돌보시는 것보다 간부직이 더 우선이며 앞으로 '부'자를 빼고 단장이라고 생각하고 잘 협조해줘요' 하고 웃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를 잠시나마 바다를 닦게 하고 또 정화시킨다.

16시 30분 귀경길에 올라 자비하신 모후pr. 단장님의 끝기도와 기사님의 쉼없는 멘트를 들으며 우리는 본당에 맨 먼저 도착하였다. 우리의 사령관인신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레지오 영적 지도신부 박 세례자 요한신부님, 원장수녀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단체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6-5)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의 기도를 전구해 주소서.

성가정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은빛대학 탐방

은빛대학은 2000년에 설립되어 13년 된 어르신을 위한 활동 단체입니다.

은빛대학의 교무 담당은 학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2명을 포함하여 교사 13명이며, 남학생 1반, 여학생 9반 총 10반 21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반은 담임 선생님 제로 운영됩니다.

은빛대학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로 1학기 수학여행, 2학기 예술제가 있고 그 외 캠프와 9가지의 동아리 활동, 성모의 달 행사 및 일치의 날과 같은 성당 내의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화요일과 금요일 전문교사를 초빙하여 수업하며 목요일 동아리는 자체 교사가 동아리 활동을 돕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면 동아리 활동을 몇 가지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은빛대학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희숙 아네스 부회장 : 불교를 믿다 2001년에 우연히 세례를 받고 한 달 만에 은빛대학에 다녔는데 그해 본당에서 1월에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수녀님께 축일 축하를 받고 감동스러워 그 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은빛 대학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목요일엔 은빛대학에 나오려고 다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은빛대학에 들어오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행동이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참여하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인지 은빛대학 여학생들은 참으로 밝습니다. 그런 점이 좋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세 가지 해서 일주일에 3일은 성당에 나옵니다.

남중희 안드레아 회장 : 냉담하다 5년 전부터 은빛대학을 다니며 신앙이 키졌습니다. 은빛대학 활동이 재미있고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선생님들의 재능이 좋아 그 분들만 따라하면 됩니다. 은빛대학에서 즐겁게 보내니까 나이가 들지 않는 느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참으로 훌륭하며 사랑이 많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어설플니까 더 사랑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잘 되어있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윤금옥 로사 학장 : 은빛대학은 재정지원이 중요하고 모든 면에서 뒷받침이 잘돼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이지만 그중 70%정도가 80대로 고령화되다보니 70대 초반은 젊은 생각에 들어오지 않으려하십니다. 그럼 이유로 신입생이 적는데, 좀 더 젊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참여가 늘어 분위기가 젊어진다면 전문 강사로 이루어진 동아리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젊은 분들과 연세 드신 분으로 반을 차별화하고, 현재 한 반에 학생수가 23-25명 정도인데 15명 정도를 한 반으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차별화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장소는 충분한데 봉사자의 부족으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되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활동과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기제로 운영하고, 3월과 9월 한 달간 쉼만 입학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무단결석을 하시면 제명이 됩니다. 은빛대학은 단지 소일거리로 다니는 곳이 아닌 무언가를 배운다는 뿌듯함을 갖는 노인대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빛대학 입학 조건은?

종교는 관계없고 건강하셔서 이곳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봉사하면서 보람된 점이 있다면?

윤금옥 로사 학장 : 교사 2년, 학장 3년을 지내며 노년은 앞으로 누구나 겪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30년 후의 나의 노년을 미리 준비하며 어르신들께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밖에서는 막연한 노년을 상상할 터이지만 은빛대학 봉사를 하다 보니 나의 노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가고 준비되어지는 삶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본당은 매 주 학생 어르신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생님들이 식사까지 맡다가 4년여 전부터 레지오에서 점심 준비를 맡아주는데 꾸리아의 도움이 없다면 은빛대학 운영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꾸리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순선 실비아 부학장 : 은빛대학 교사를 하면서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봉사라는 말자체가 씁스럽습니다. 목5동 은빛대학 학생들은 복 받으신 분

들이십니다. 성전도 크고, 평지이고, 주교님도 계시고, 동아리 활동도 많아서 타 본당의 본이 됩니다. 13년간 교사생활을 하다 보니 정은 말할 수도 없고 당시는 힘들었지만 돌아서면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곳은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얻어가는 곳입니다. 남학생 반을 맡다 보니 내성적인 분께는 힘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시도해 보게 되고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윤금옥 로사 학장 : 옆에 계신 이경희 크리스티나 총무님은 7년 차로 장보기할 때 질 좋은 재료를 값싸게 구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발로 뛰어다니며 봉사에 열심입니다. 물건 구매, 대소사 일처리에 참으로 능합니다. 부학장님은 13년간 꾸준히 교사생활을 하며 교사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초창기의 좋은 점과 새로운 점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능합니다. 봉사에 올인 하는 부학장님 같은 분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장순선 실비아 부학장 : 학장님은 지난 해 혼자 십자가를 지고 은빛대학의 규칙과 규율을 잡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은빛대학을 맡아도 어렵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한 분입니다.

(해나리 편집실 정리) ■



해나리 은빛대학 수학여행기

은빛대학 학생 김종선 스테파노



첫째 날(5월 29일 화요일)

은빛대학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만남의 방에 모였다. 남학생을 하늘색, 여학생은 연두색, 선생님은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

고 각자의 명찰을 목에 걸었다.

주임신부님의 인사말씀과 기도를 받고 120여 명이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탔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싱그러운 신록의 향기가 마음을 부풀게 했다. 차창 밖의 모내기가 끝난 농촌은 파랗게 보였고, 비닐하우스가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장 실비아 선생님의 지도로 목주기도를 올리고 치매예방 차원에서 넌센스 퀴즈 맞추기를 했다. 기흥휴게소와 오수휴게소에 잠깐씩 들러 휴식을 취하고, 출발하면서 윤 로사 학장님은 오후 스케줄과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은신처였고 이를 토벌하려는 군경과 치열하게 격전을 벌였던 '피아골'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상관, 관촌, 춘향골 남원과 구례를 잇는 도로는 산간지역으로 길고 짧은 20여 개의 터널을 통과하여 섬진강이 구비치는 구례에 도착했다.

강을 따라 드라이브만 하여도 행복해진다는 섬진강!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마이산에서 발원해 500리 물길을 이루는 남한의 5대 강 중 오염되지 않은 최후의 청류로 꼽힌다.

점심으로 다슬기 탕, 다슬기 무침, 다슬기 수제

비를 막걸리와 곁들여 먹고, 지리산의 화엄사로 향했다. 어제가 석가탄신일 이어선지 입구 양쪽에는 연등이 무수히 달려있었다. 지리산의 풍광과 섬진강의 바람이 함께 하는 산사를 두루 살피며, 화엄사에 대한 해설사의 세세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화엄사를 뒤로하고 '구례문화 예술촌은 동편제로부터'라는 현수막이 걸린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으로 이동했다. 동편제는 지역적으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라도 동쪽 산간지역과 경상도 서남지역에 전승되어 오던 소리 제를 가리킨다. 동편제는 서편제와 함께 판소리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판소리가 분화, 발달되면서 지역에 따라 사설이나 음악, 성음 및 발성법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전승되면서 비롯되었다.

전수관에서 명창들의 성주풀이, 춘향가, 흥보가를 듣다보니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둠이 깔려서야 '피아골 피정의 집'에 도착했다. 산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피정의 집에서 강길웅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환영을 받은 후, 한 방에 3-4명 씩 방 배정을 받아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5월 30일 수요일)

맑은 공기와 수목의 향을 맡으며 조배실로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아침식사를 했다. 어제와 달리 흐리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 우리는 대표생태 관광지인 순천만으로 이동했다. 순천만은 자연과 인

간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 습지로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정겹게 하늘을 날고,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갈대는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과 낮에는 새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본다는 순천만 천문대와 자연 생태관과 갈대열차 생태 체험선도 있었다. 생태 학습을 마치고 승차하는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2013년에는 국제 정원 박람회까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한다.

정오 경 소나기가 그치고 지체되었던 일행이 모이자 낙안읍성으로 향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던가, 자연의 향기로 버무린 한정식으로 소문난 '선비촌회관'에 들러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가 도착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의 성, 동헌, 객사, 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된 국내 최초로 성과 마을이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낙안읍성가야금 병창보존회' 제자들의 가야금 공연을 관람하고, 수문장 교대식, 짚풀공예, 낙안서당, 천연염색(여미고) 등을 둘러보았다. 매년 10월에는 낙안 민속문화 축제와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린다고 했다.

낙안읍성을 출발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만 생소한 듯 새로웠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보며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곡예 하듯 달리며 광양 매화마을을 지나 '홍쌍리 매실가'에 도착했다. 광활한 산자락에 청매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매실나무와 3000여 개의 매실을 숙성시키는 향아리들은 장관을 이루었다. 매실 농원을 출발할 즈음 다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질푸른 나무에 비가 내리니 생기 있고 아름답게 보였다.

피아골 피정의 집에 도착해보니, 본당의 주임 신부님과 원장 수녀님 사목회장님과 사목회 임원이 격려차 내방하여 기다렸다. 다 함께 저녁식사

를 한 후 푸짐하게 마련해온 술과 안주로 파티를 했다. 박광원 주임 신부님의 노래를 들었고, 본당 부임 100일 째 되는 오늘을 기념하여 축하 박수를 쳤다.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고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렇게 흥겹게 노래하며 두 번째 밤도 지나갔다.

셋째 날(5월 31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고, 강길웅 신부님의 인솔 하에 유명한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연곡사로 향했다. 연곡사 일주문 주련에 새겨진 글에 대해 강 신부님은 "앞으로 억만 년을 가던, 뒤로 천 년을 가던 내가 가 있는 시간은 항상 지금이다. 나는 항상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영원은 지금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면 영원히 잘 사는 것이다."라고 풀이해 주셨다.

연곡사를 내려와 지난 밤 숙취를 해소시켜 줄 조개국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했다. 조배실로 올라가 연곡사에서의 설명과 연관된 강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파견 미사를 봉헌했다. 돌아오는 길에 예정에 없었던 박경리 소설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최참판 댁」을 둘러보았다.

수학여행을 준비하신 윤 학장님과 여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통과 배려, 공감의 리더십을 고루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익한 여행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박 주임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저는 외딴 교우입니다

청년부 신보현 엘리사벳



저는 신혼 2개월 차 외딴 교우입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천주교 가정에서 자라온 제가 외딴교우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청년성서모임 등 다양한 청년활동과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신랑과 연애하면서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종교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제게 왜 이런 인연을 지어주셨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수 없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 인연이 종교가 다른 이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주님, 제가 결혼해 이 사람을 개종시키라는 사명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에 주님께서는 늘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한 날들을 보내며 결혼준비를 하고 있을 때, 1보좌 신부님께서 혼배면담을 하면서 “신랑이 관면혼배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욕심이나 강요를 버리고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제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신랑에게 천주교 신자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맞을 것만 같은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순간 저는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개종을 하거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그

것을 강요하고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는, 종교가 다른 나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려 노력하는 것에 감사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데려와 앉아있게 한다고 그 귀와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고 미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자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가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행복해져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께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신랑을 위해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제 남자친구를 인도하시어 하루빨리 당신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어 천주교 신자로서 저희가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젠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범된 삶을 살게 하시어 제 가족들도 저를 보고 그 안의 당신을 느끼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의 주체가 바뀌자, 제 마음도 기도도 한결 더 깊어지고 또 평안해 졌습니다.

요즘 저는 신랑을 위해 저의 신앙을 가꾸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저와 함께 기꺼이 손을 잡고 미사를 드리러 가주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저는 기쁨으로 성가정을 준비해가고 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일치의 날 행사에 다녀와서

초등부 3학년 김채현 클라라



저는 목5동 성당의 아우름 성가대 막둥이 3학년 김채현 클라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 일치의 날 행사 때 친구, 언니, 오빠들의 멋진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우름 성가대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는 그저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줄 때가 가장 보람칩니다. 박수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활동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리 선생님과 교리 수업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편안함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교리시간에 떠드는 친구들 없이 모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받은 느낌 그대로 친구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하나 반! 교리시간에 조용히 하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자.^^

화이팅~~

저는 예수님과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언니, 오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주 어린이 미사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고 교리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우름 성가대 연습, 미사 참여, 교리수업 이렇게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성당에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일치의 날 행사에는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부산에 가느라 참여하지 못했었기에 이번 일치의 날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양정고등학교 체육관에 갔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준비한 공연과 친구들의 율동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한 곳에 모여, 같이 공연을 보고 말씀도 듣고 노래도 같이 하는 것은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내년 일치의 날에는 나도 4학년이니 공연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일치의 날 행사 때에는 좀 더 빨리 가서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이 친구들과 엄마, 아빠, 내 동생 채영이 그리고 목5동 성당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우름 성가대 끝까지 화이팅!!!!!! 📺

본당 설립 25주년에 치러진 일치의 날

7-4구역장 백영원 안젤라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일치의 날’이 2012년 5월 20일 일요일, 양정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가 목5동성당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니다.

미사에서 박광원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의 강론 첫 마디는 ‘참으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당의 초등부에서 어른신까지, 2대 신부님이셨던 최용록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두 분 보좌신부님, 수녀님 세 분 등 목5동 성당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쁘고, 사반세기 동안 목5동 성당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 더 기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50여 세대 150여 명의 공소로 시작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12,000여 명의 공동체로 성장하였고, 서서울 지역청을 설립하여 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당으로 발전한 목5동 성당에 대하여, 주임신부님은 늘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라고 자문하시는데, 그 답은 첫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둘째 몸소 신앙을 살며 셋째 하느님의 복음을 증거 하는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가정→반→구역→본당→교구이므로 반과 구역을 튼튼하게 하여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 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체육관에서는 은빛대학의 공연과, 1년여 동안 성당 문화센터에서 같고 닦은 형제님들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습니다. 색소폰 연주가 끝나자 경품추첨이 시작 되었고, 저마다 자신의 번호표가 불리길 바라면서 긴장된 시간을 보낸 후 운동장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풍성하게 준비된 뷔페와, 더운 날씨를 예상해 넉넉하게 준비한 생맥주를 마시면서 각 구역별로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 덕분에 생맥주를 받으려는 줄이 길었지만 구역식구들을 위해 기꺼이 줄을 서고, 구역 어른들과 식구들의 과일과 술안주까지 챙기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신 반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체육관에서 본격적인 공연과 경품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의 공연과 2보좌신부님과 막내 수녀님의 피아노 2중주와 은빛대학의 공연이 있는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구역장님들의 “Line Dance”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20개 구역의 구역장님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총 구역 총무님을 포함해 21명이 공연하였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모두 20대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같은 옷이었지만 저마다 다르게 꾸미고 가꾸어 신자들에게 더 많은 웃음을 선사했고,

특히 노랑, 주황가발이 최고 ‘인기’였습니다.

8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연습해주신 구역장님들과, 동작 하나하나 열심히 지도해 주신 이현하 수산나 자매님, 음악을 담당해주신 노순정 헬레나 자매님, 함께 격려해주고 간식도 챙겨주신 이상희 카타리나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함께 부른 ‘거위의 꿈’은 손우성 미카엘 신부님의 탁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욱 빛났고, 이때 등장하신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사랑으로’는 저희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공연과 게임이 진행되며 사이사이 행운권 추첨도 있었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 사람이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성지순례 비용 200만원이 걸린 대상 추첨이 시작되려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의 건의로 학생들의 행운권도 함께 섞어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신부께서는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라며 성호를 긋고 행운권을 뽑으셨고, 대상의 행운은 “2544번! 3-2구역 미카엘라 반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신

부님께 달려가 포옹하더니, 반장으로 봉사해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으며 울먹이며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저의 일처럼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목5동 식구들 모두에게도 이런 행운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주임신부님께서 단체별, 구역별로 격려금을 주셨고, 마침기도와 강복으로 25주년을 맞이하는 목5동 성당의 일치의 날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격려금을 받아 각 구역별로 저녁까지 일치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3차까지 간 구역들로 많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목5동 성당 식구들은 체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큰 행사를 치를 땐 언제나 뒤에서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아침부터 사회 보느라 고생하신 정진향 바울라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사목회와 신부님, 수녀님, 초·중·고등부 교사님들, 사무실 식구들, 각 단체 구성원들, 구역, 반장님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하느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



일치의 날 초등부 대상

초등부 5학년 박성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일치의 날입니다. 그것도 본당 설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해에 하는 화합의 날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시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공연도 하시고, 퀴즈도 풀고, 박 터뜨리기도 하며 하루 종일 즐겁게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여서 더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행운권 추첨을 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당첨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당첨될 때마다 너무 부러워서 일부러 안 돼도 괜찮다고 하면서 주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고, 정말 갖고 싶은 자전거는 초등부에서 한 명만 받게 되니, 솔직히 내가 대상을 탈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2029번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자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초등부 대상을 신부님이 뽑으셨습니다. ... 다행히 그 번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확률이지만 모두 자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뽑으셨습니다. ... 이번 번호는 아이는 학원을 가고 부모님이 나오셔서 인정할 수 없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뽑으십니다. 누가 뽑힐까??????
혹시 나일까???? ... 나이면 얼마나 좋을까!.....

2.0.2.9..... 내 번호가 불리었고, 너무 신기해서 저라고 소리치며 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단상에 올라가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 자리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2층에 있던 엄마, 아빠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적은 확률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누구든지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게 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갈 때 잘 타겠습니다. 전례부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녁은 구역 신자들과 맛있게 먹으면서 올 해 일치의 날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일치의 날 본당이 하나가되다

중고등부 박민아 올리아나



5월 21일 목5동 본당은 양정고등학교에서 일치의 날을 열었다. 체육관에 모인 천여 명의 교우는 지구마다 모여 앉다가 차츰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끼리 앉아 미사를 들었다. 미사 드린 후 점심엔 각 지구마다 모여 뷔페식으로 된 음식을 각자 드실 만큼만 가져와 맛있게 드시고 후식인 수박과 오렌지, 음료수를 각 지구마다 나눠주셔서 모두 함께 모여 후식을 드셨다.

이어 장기자랑이 있을 거라 해서 평소 준비한 중고등부의 공연을 연습하려갔다. 중고등부 공연은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오늘도 자리를 맞춰서 또 연습을 했다. 평소 연습하면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점차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

일치의 날도 여덟시에 모여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연습을 했다. 그동안의 연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자 애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장기자랑의 막이 올랐다. 처음엔 초등부의 공연부터 시작되었다. 초등부는 귀엽고 깜찍한 울동으로 어르신들의 입꼬리를 올리게 했다. 그런 후 초등부 선생님들이 아이유의 '너랑 나'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었다. 모두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대기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도 신이 났다.

다음으로 중고등부가 무대에 나갈 순서가 다가오자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혹시 틀리거나 않

을까 하는 불안에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등부 선생님들의 열심히 하라는 응원에 마음이 편해졌고, 무대에 올라간 우리는 웃고 즐기면서 레크 송을 추었다.

레크 댄스는 실수 없이 잘 끝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흐뭇해하셨다. 그 후 구역장님들의 멋있고 훈훈한 춤과 은빛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도 박자에 맞춰 춤을 추셨고, 젊은 분들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절을 하며 장기자랑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본당 어르신들과 어린동생들, 친구들이 하나가 되는 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ox퀴즈로 모르는 분들과 상의를 하며 문제를 맞히곤 했는데, 이 게임은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 같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들은 상품을 얻어가는 행운을 얻으셨다. 이어 박 터트리기를 하였다. 모두 한 곳을 보며 콩 주머니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때는 홍팀과 청팀으로 나누어 던졌는데, 이걸 어느 팀이 이기던 모두 즐겁게 던지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기에 서로 즐거워하며 던졌다. 나와 다른 팀이 이기긴 했지만 즐겁게 던졌던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상 발표였다. 그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으며 중고등부 학생으로써의 마지막 일치의 날이어서 그런지 더 깊이 기억될 거 같다. 본당 설정 25주년을 맞은 일치의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목5동 본당 25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

그날

김선옥 미카엘라



목5동성당 일치의 날 기적 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신부님, 구역장님, 신자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그날이었습니다. 행사 전날부터 기대

감으로 동요가 있었습니다.

행사내용이 어떻게 전개 될까? 행사 날 빨간 상의는 어떤 것으로 입을까? 행사장으로 어떻게 갈까?

그러나 아침에 이런저런 일로 꾸물거리게 되어 행사시간에 임박해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고, 결국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5반 반장님이 마치 기다린 듯 동승을 권했습니다. 반장님과의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반장님이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주님의 은총입니다”라고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는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노고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자전거라도 타지 않을까?’ 기대는 했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오겠나?’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마침내 행사는 막바지에 다다라서 성가정 대상의 번호가 불러 질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2~, 9~, 4~, 4” 2944번이 불렸습니다.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기적의 숫자가 불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님이 부른 숫자라고 생각하며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옆에 앉자있는 4

반 반장에게 조그만 소리로 “나야” 하고는 주저 없이 달려 나갔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 어디 있니?”라고 부르는 것 같아 혹 늦게 나가 마음이 상하시지나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고, 평소 나와 다르게 제가 달릴 수 있는 최대의 빠르기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부님을 포옹하였습니다. 평소의 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따뜻미지근한 성격입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기뻐해주어야 할 기회가 있어도 마음껏 기쁨을 표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인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기적 같은 일로 인해 기쁨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 기쁨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기뻐해야할 때 기뻐해주지 않아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행운은 한 장의 벽돌이 쌓여 집을 이루듯이 많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일을 쌓을 만큼 덕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꿈을 꾸었니?”라고 물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긴 한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남편에



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었더니 이틀 전에 “주교님을 꿈에 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저보다 열심이며, 바쁜 중에도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장 활동과 창세기반 성경공부만으로도 버거워했습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접고 집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즈음 전임 반장에게서 신임 반장봉사의 부탁이 왔습니다. 반장이란 봉사보다는 학교생활에서 남보다 우수하고 반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 면에서 부족한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의 사정이 반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기에 망설이다가 어설픈 초보반장이 되었습니다.

반장 일을 하면서 내가 절실히 느꼈던 것은 ‘그동안 정말로 성당을 수십 년 공짜로 다녔구나!’였습니다. 성당의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이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넓은 공간의 청소가 신자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나리’를 우편함에 넣어줄

때 맨 처음에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문도 했었습니다.

판공 성사표를 나눠주는 일, 반 회비를 거출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은 성당에서 배포하고, 배정해서 쓰면 되지 왜 일을 번거롭게 할까?’라고 생각했고, 이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자매님을 만나면 서슴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조했었고, 3명밖에 나오지 않는 반모임을 할 수 없다고도 생각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긋난 나의 생각을 바로 잡게 한 것은 박해받던 시절 몇몇 신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켰던 성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해시절의 소 공동체의 소박한 모습을 떠올리자 불평했던 일들이 편안한 일상처럼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활기차게 반장봉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감격의 그날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그날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도 기쁨을 생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으며,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기적을 일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왜 형편없는 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시며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오늘도 나는 묵상합니다. ✚

본당 설립 25주년 일치의 날

5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오후 5시
양정고등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5월 12-13일 문화교실 꽃꽂이 반 꽃꽂이 전시회



❖ 5월 5일 노틀담 수녀회 진달래축제



❖ 신입 입교자



5월 27일 러시아 한인 성전 건립기금 마련

러시아 한인 성전 건립기금은 총 109,796,800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 630-007538-863 (외환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신입 단체장



1-3구역 구역장
전한우 알베르프, 정미정 루시아



2-1구역 구역장
위정숙 베드로, 최정숙 비비안나



마리톤 회장
안병정 요셉



성가정의 모후
김명숙 소피아

임명장 수여식



시설분과장
조지학 다마스



❖ 5월 3일 은빛대학 효도잔치



❖ 5월 29일 여성 4개 꾸리아 성지순례



❖ 자모회 목주만들기



❖ 6월 주임신부님 구역 사목 방문

시간 및 대상 : 모임 당일 저녁 8시 30분 구역 전 신자

6월 일자	요일	구역	장소
12일	화	3-1구역	303동 801호
14일	목	5-2구역	515동 408호
20일	수	2-2구역	234동 406호
21일	목	1-1구역	114동 302호
22일	금	7-2구역	트윈빌 A코아 1701호
27일	수	3-2구역	321동 408호
28일	목	7-3구역	하이퍼리온 다목적실
29일	금	6-1구역	607동 601호



멋진 2구역 2반 화이팅

조효주 아녜스



+ 찬미예수님

성모님의 달 오월에 이렇게 우리 반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활짝 핀 봄꽃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요즘, 2단지 아파트 셋길을 지나 성당으로 가며 그간 반장으로서의 활동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참 부족한 제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우리 반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해주시는 반원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힘의 원동력인 2단지 2구역 2반인 우리 반은 총 18세대 중 아주 열심한 세대는 10세대 정도이지만 반에서 하는 일은 모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할머니 자매님들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반모임 개근과 레지오도 하시는 배 마리아 자매님, 항상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의 박 마리안나 자매님, 형제님과 함께 구역봉사도 열심인 장 소피아 자매님, 직장과 레지오도 하면서 반모임 장소도 협조해주시는 김 율리안나와 어머니이신 박 마리아 자매님, 세례를 작년에만 받고 성서공부도 열심인 정 엘리사벳, 그리고 직장 관계로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

번 달부터 참석하는 정 율리아나, 착하고 예쁜 고 헬레나, 외곽교우 교리를 받고 있는 이정순 자매님 등 생각해 보면 모두 우리 반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우리 반의 활동은 다른 구역의 모든 반들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으로 쉬는 교우 가정에 주보 넣기를 꾸준히 한 결과 냉담을 푸는 경우도 있었고, 쉬는 교우 가정에는 '성지가지'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부활축하' 달걀바구니를 놓아 주민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닫힌 마음을 열고자, 교우의 집에는 해나리, 달력, 성사표를 직접 배달하여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모임 출석이 저조한 것인데 우리 반은 매월 8명에서 10명은 출석을 합니다. 이런 것 모두가 부족한 제가 반장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지요. 저의 목표이자 임무는 쉬는 교우 모두를 하느님께 다시 나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반원 모두가 북돋아주시는 용기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활동들을 점검해보고 반원들과 즐겁게,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노력하는 반장이 되리라 다짐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추신 : 다음 달 반 모임에는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반원들과 나누겠습니다.^^

본당 설정 25주년 해나리 다시보기

- 목5동 성당의 어제와 오늘 -

이번에는 지난 호 해나리(217호, 218호)의 다시보기 내용에 이어 1998년 10월 8일부터 2002년 3월 4일 까지 김구희(세례자 요한) 주임신부님이 본당에서 사목하신 기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대 김구희 세례자 요한 신부님】

※ 1998년 10월 8일 ~ 1999년 12월 31일

▶ 김구희 주임신부님 부임 : 10월 9일(금) 제3대 목5동 본당 주임신부님으로 김구희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 사목회와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임하였으며 10월 11일 교중미사 후 환영식이 진행되었다.

▶ 2월 18일(목)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 공개 강의 : 일상생활의 문제해결과 정신집중, 두뇌 발달, 건강증진, 영적증력 개발, 기억력향상 등을 위해 1968년 미국에서 '정신력 응용과학으로 인정한 마인드 컨트롤 공개 강의'가 지하 소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총 10회의 강의를 이어졌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다.

▶ 3월 28일(주일) 깨끗한 동네, 깨끗한 마음 실천의 날 행사 : '이웃과 함께하는 목5동 성당'이라는 주제로 본당 주관 아래 처음으로 시도되는 뜻깊은 행사가 많은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구역별로 정해진 장소에 모여 쓰레기를 수거해서 성당으로 가져온 교우들은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모아진 쓰레기 분량은 5톤 트럭으로 하나 가득이었다.

▶ 5월 16일(주일) 일치의 날 : 본당 설립 12주년을 기념하며 전 교우가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서의 일치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치의 날 행사가 주님승천대축일에 양정고등학교서 열렸다. 본당의 명물인 풍물놀이 팀의 공연, 체육대회, 음식 나누기, 묵주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가 봉사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는 신부님의 말씀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 6월 5일 제1회 UNITAS 찬양 콘서트 : 주일학교 교사회에서 주관하는 중고등부 UNITAS 찬양콘서트가 지하 소성당에서 개최되었다. UNITAS는 1998년 2월에 드럼과 건반, 베이스기타, 보컬(노래)로 구성되어 창단되었다.

▶ 6월 20일 목5동 본당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목5동 본당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조문재(임마누엘) 형제와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력으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목5동 본당의 설립과정부터 현재까지 본당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12월 31일 2000년 대회년 맞이 행사 : 12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주임신부님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한 후, 모든 교우들이 본당 마당에 모인 가

운데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느님께 드리는 교우들의 편지를 소각하여 봉헌하는 예식이 거행되었다. 신부님은 "20세기를 보내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번제물로 봉

헌하고 하느님 앞에 새로이 태어남을 기억하며 이 예식을 통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자"고 말하였다.

● 1998-1999년 사진



※ 2000년

▶ 3월 23일 해나리 은빛대학 개교 미사 및 입학식 : 본당 신부님과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해나리 은빛대학이 3월 23일(목) 오전 10시 개교 미사를 시작으로 첫 입학식을 가졌다. 제1회 입학생은 본당과 지역사회의 65세 이상 어르신들로서 모두 111명이다. 주임신부님은 개회사를 통해 "해나리 은빛대학의 첫 입학생들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지역에서의 선교사가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해나리 은빛대학은 매주 목요일 각 분야의 전문가 강좌가 있을 예정이며 한글, 영어, 서예, 율동, 건강 강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과 과정이 짜여있다.

▶ 5월 21일(주일) 일치의 하루 : 본당설립 13주년을 기념하는 일치의 하루 행사가 5월 21일 9시 30분부터 양정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미사 봉헌 후 시작된 행사에는 지역의 단체장들, 특히 종교의 벽을 넘어 이웃 법안정사의 진월스님도 참석하여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주임신부님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어

본당 풍물 팀의 사물놀이, 해나리 은빛대학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음식 나누기, 체육대회, 묵주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7월 8일~9월 24일 복음화 가두 선교활동 : 가두 선교를 통하여 외인들에게 천주교를 알리고 입교하도록 권유하며 냉담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하기위해 기획된 가두 선교 행사가 7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파리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열렸다.

▶ 11월 26일(주일) 대회년 기념 혼인 갱신식 : 11월 26일(주일) 11시 미사 중에 22쌍의 혼인갱신 예식이 있었다. 4주간의 준비교육을 마치고 예식에 참석한 부부들은 강복 받은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가정봉헌기도를 바쳤다. 주임신부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 사업에 동참한 부부들은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날을 꼭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 12월 24일(주일) 성가 경연 대회 : 본당에서는

처음 열린 구역 대항 성가 경연 대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3시부터 대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총 9

개 팀이 출전하여 저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었다.

● 2000년 사진



13주년일치의하루

복음화가두선교

성가경연대회

은빛대학입학식

혼인강신식

❖ 2001년

▶ 5월 20일(주일) 일치의 하루 행사 : 본당 설립 14주년 기념 일치의 하루 행사가 5월 20일(일) 양정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전 교우의 에어로빅, 풍물놀이 팀 공연, 해나리 은빛대학 어르신들의 단체 무용이 선을 보였고 음식 나누기에 이어 본격적인 체육대회와 목주꾸미기가 진행되었다.

캠프는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MBTI(인성교육)교육, 개별 신앙상담과 고백성사,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등 2박3일 동안 진행되었다.

▶ 7월 27일 뮌헨 그레고리안 성가단 내한 공연 : 국내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그레고리안 성가 연주회가 9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하느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의 미사곡이 연주되었다. ‘스콜라 그레고리아나 모나체시스 성가단’은 1998년에 창단되어 독일 국내와 국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는 성가단이다.

▶ 7월 5일 조현준 바오로 신부님 사제서품 :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이 7월 5일(목) 오후 2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모두 24명의 사제가 탄생했으며 목5동 본당 출신으로는 두 번째 사제인 조현준(바오로) 부제님이 사제서품을 받았다. 신부님의 첫 미사는 7월 8일(주일) 11시 미사로 봉헌되었다.

▶ 12월 18일(주일) 잠비아 선교후원회 바자회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에서 주관하는 잠비아 선교를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가 12월 16일(주일) 성당마당에서 열렸다. 특히 11시 미사 중에는 잠비아 수녀님들이 아프리카 토속적인 목소리로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어 교우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바자회 참여의 계기를 만들었다. 성황리에 진행된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잠비아에서 봉사하는 수녀회에 전달되어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아이들을 위한 진료소 마련, 고아원 운영, 고통 받는 잠비아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

▶ 7월 29일~7월 31일 성가정 여름캠프 : 본당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가족을 위한 여름캠프로 정해진 프로그램보다는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고 온 가족이 오붓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7월 29일(일)부터 7월 31일(화)까지 3일 동안 천진암성지 옆 우산 청소년 야영장에서 개최되었다. 440여 명이 참가한

▶ 12월 30일(주일) 성가정상 봉헌식 : 본당의 주보이신 성가정상 봉헌식이 성가정 축일인 12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되었다. 주임 신부님은 ‘성 가정상 봉헌식을 통해 일치와 화해가 가득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성가정상

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최봉자(레지나, 조각가) 수녀님의 작품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의 모범되고 사랑이 넘치는 성가정을 아름답고 차분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 2001년 사진



14주년일치의하루

그레고리안성가단

사제서품

성가정상봉헌식

성가정여름캠프

잠비아선교후원회

조현준신부사제서품

❖ 2002년 1월 1일~2002년 3월 4일

▶ 2월 3일(주일) 청년연합회 해오름제 및 해오름 미사 : 청년 교우들의 축제인 해오름제가 2월 3일(주일) 대성전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청년부 소속 각 단체(청년연합회, 복사단, 라우스 성가대, 성서모임, 청년 레지오 등)단원들 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냉담 중인 청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사가 봉헌되었다. 추기경님은 강론을 통해 “청년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며 가슴속의 그리스도의 해가 가득차길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강복해주셨다.

해오름 축제가 막을 내린 오후 5시부터는 특별히 초청되신故김수환 추기경님이 집전하신 해오름 미

▶ 3월 3일(주일) 김구희(세레자 요한) 신부님 송별 미사 :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이드으로 본당을 떠나시는 김구희 신부님의 송별 미사가 3월 3일(주일) 11시 미사에서 봉헌되었다. 신부님은 이임사에서 “목5동본당은 일치와 영성을 잘 보여준 공동체이며 세계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씀하셨다. 📷

정리 · mari(해나리 편집팀)

● 2002년 사진



신부님송별미사

해오름미사

해오름제

달림이들의 새로운 일탈 도보 성지순례

목5련 마라톤 회장 안병정 요셉



창립한 지 5주년이 된 '목5련'이 늘 달리기만 하다가 이번엔 도보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마다 신심의 차이도 있고 또 달림이란 굴레 때문에 훈련하고 주로에서 뛰기만 했지 성당 내 단체 활동에 참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광원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이 주중 훈련에 함께 하시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달리기도 좋지만 신심을 키우며 기도 속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무더위가 오기 전에 성지순례를 하기로 정하였다. 김대건 신부님의 성소 요람인 은이성지에서 출발하여 유해가 안치된 미리네 성지까지 도보로 순례를 한 후 미사를 참례하고 십자가의 길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드디어 도보 성지순례가 예정된 6월 17일!!!

아침 6시에 만나 출발하기로 한 날 바람이 산들산들 불며 날씨가 화창했다. 10분 전 성당 앞 주차장으로 발길을 재촉하니 벌써 기대와 설렘을 가진 많은 회원들이 도착하여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다가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맞아준다.

출발시간에 늦은 분 없이 33명이 지원 버스에 탑승하여 은이성지로 출발했다. 이동하며 주모경과 달림이의 기도를 함께 바쳤다. 아침시간이라 막힘없이 달려 1시간 여 만에 은이성지에 도착했고 내려 성지를 간단히 둘러본 후 도보 순례를 시작하기 전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목5련의 깃발을 높이 들고 걷는 회원들은 꾸준히 달리기와 스트레칭,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다져온 지라 보통 사람보다 1.5배는 빠른 속도로 걸었다. 걷기보다 뛰기를 바라는 회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운구했던 그 길을 함께 했다.

30여 분이 지나 첫째 관문인 신덕고개에 도달하여 공 이시도루 형님이 챙겨 오신 그리스의 카씨리 치즈로 채운 샌드위치를 먹었다. 다시 출발하여 망덕고개로 가는 동안에는 울창한 숲을 지나며 삼림욕을 했고 야생화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고개 조금 못미처 가파른 '갈딱 고개'가 있었지만 1시간 40분 만에 한 분의 낙오도 없이 도착했다. 마지막 관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세 고개를 다 넘는 쾌감을 느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최종 목적지인 미리네 성지에서 11시 미사를 보기 위해 내리막길을 서둘러 내려와 성지 뒤편 경당에 도착했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술 고팠던 회원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오늘 행사의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보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도록 지원해주신 주임신부님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로 다져진 신심과 친교를 통하여 단합하고 심기일전하여 "함께 걷고 달리는 목5련"으로 거듭날 수 있길 다짐 해본다. 📷



우리본당 살림살이

수 입 (천원)			지 출 (천원)		
과 목	12년 4월	12년 5월	과 목	12년 4월	12년 5월
교무금	104,037	91,312	제전비	1,573	4,886
주일헌금	79,018	45,297	전교비	5,135	5,748
감사헌금	7,535	4,900	단체보조비	12,824	16,812
특별헌금	21,553	3,082	주일학교운영비	9,028	5,401
기타헌금	41,187	-	특별헌금	13,360	11,275
헌배,장례	1,000	-	사제생활비	2,800	1,400
기타목적헌금	-	18,286	사제성무활동비	1,500	1,500
기타기부금	6,510	5,560	사제공제및교육비	1,200	300
기타수입	-	536	기타성무지원비	-	600
후원금	3,259	4,374	수녀생활비	3,600	1,500
가수금	50	90	수녀성무활동비	750	750
예수금	1,149	965	수녀연금및교육비	325	165
			신자피정교육비	1,960	830
			자선찬조비	8,941	53,980
			본당행사비	9,187	33,920
			교구납부금	70,000	30,000
			직원급여	4,716	4,716
			직원수당	2,319	2,519
			상여수당	800	-
			직원노임	8,702	7,902
			사무용품비	394	28
			인쇄비	1,485	261
			소모품비	3,871	2,154
			수도광열비	10,940	5,345
			수선비	15	268
			공과금	74	-
			차량비	-	1,970
			임차료	252	346
			용역비	1,847	2,790
			통신비	464	641
			복리후생비	3,272	3,230
			시설비	1,740	10,313
			가수금	-	-
			예수금	1,149	965
			비품	2,100	1,200
			잡지출	1,121	101
합계	265,298	174,402	합계	187,444	213,816
이월금	303,204	381,058	이월금	381,058	341,644
총계	568,502	555,460	총계	568,502	555,460

★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글이 해나리의 힘입니다. 성당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주세요. 분량은 A4 용지 1-2매 정도면 좋습니다. 원고 쓴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나리 메일로 보내주세요. haenari0330@hanmail.net 입니다.



전입교우 명단

2012년 4월 1일 - 4월 30일 전입교우 명단

전입 월	교 우	주 소	지역 / 구역 / 반
4월	윤종륜 프란치스코 외3	목5동 목동A 406동	4지역 2구역 1반
	김락규 요한보스코	목5동 목동A 615동	6지역 2구역 6반
	이종희 엘리사벳	목5동 트윈빌 C동	7지역 2구역 3반
	이문희 마리안나	목1동 한신A 106동	1지역 4구역 3반
	정인홍 베드로 외2	목5동 목동A 304동	3지역 1구역 4반
	김한주 루피나	목5동 목동A 310동	3지역 2구역 1반
	한선희 노엘라 외2	목5동 목동A 327동	3지역 2구역 8반
	권철 대건안드레아	목5동 목동A 530동	5지역 3구역 2반
	강지은 안나 외1	목5동 현대파크빌 A동	7지역 1구역 3반
	안현수 레지나	목5동 목동A 405동	4지역 1구역 5반
	김형남 스테파노 외1	목5동 목동A 610동	6지역 2구역 1반
	공창숙 아녜스 외2	목5동 현대월드타워	7지역 1구역 2반
	장용규 알베르도	목5동 트윈빌 B동	7지역 2구역 2반
	고석현 라파엘	목5동 목동A 219동	2지역 1구역 10반
	오유진 아녜스	목5동 목동A 133동	1지역 3구역 9반
	정혜은 세실리아 외2	목5동 목동파라곤 107동	7지역 4구역 4반
	한상원 데레사	목5동 목동A 611동	6지역 2구역 2반
	조상현 말셀리노 외3	목5동 목동A 221동	2지역 2구역 4반
강유신 안토니오 외1	목5동 목동A 610동	6지역 2구역 1반	
한정애 루피나	목5동 목동A 608동	6지역 1구역 5반	

2012년 5월 1일 - 5월 31일 전입교우 명단

전입 월	교 우	주 소	지역 / 구역 / 반
5월	유재순 수산나	목5동 목동A 531동	5지역 3구역 3반
	배정옥 안드레아	목5동 한신A 105동	1지역 4구역 2반
	권현우 프란치스코	목5동 목동A 604동	6지역 1구역 3반
	김재현 라파엘	목5동 목동A 407동	4지역 2구역 2반
	박선경 데레사	목5동 가든스위트 B동	7지역 1구역 2반
	이설혜 스텔라	목5동 한신청구A 112동	1지역 5구역 3반
	김정호 요한 외2	목5동 한신청구A 112동	1지역 5구역 3반
	김요석 요셉 외3	목5동 목동A 132동	1지역 3구역 8반
	장성연 엘리사벳	목5동 한신청구A 109동	1지역 4구역 5반
	심희수 마리아 외2	목5동 한청A 102동	1지역 4구역 1반
	임형길 그레고리오 외3	목5동 목동A 610동	6지역 2구역 1반
	김성현 레온시오	목5동 목동A 404동	4지역 1구역 4반
	박은경 세실리아	목5동 현대월드	7지역 1구역 2반
	김은미 아녜스 외3	목5동 목동A 506동	5지역 1구역 3반
	이윤세 라피나	목5동 목동A 607동	6지역 1구역 4반
	신홍수 레오 외1	목5동 현대파리지앙	7지역 1구역 4반
	이진숙 스텔라 외3	목5동 목동A 218동	2지역 1구역 9반
	강경옥 스킨라스티카 외1	목5동 목동A 222동	2지역 2구역 1반
	노연숙 마들렌스피이바라	목5동 목동A 401동	4지역 1구역 1반
	우희두 가릴로 외3	목5동 한청A 106동	1지역 4구역 3반
우준혁 시몬	목5동 목동A 115동	1지역 1구역 7반	



상담센터 **행복한 아이들**

소장 정미나(벨미나) TEL 02-2653-4306~7
현대드림타워 209호
(방송회관 옆 스포츠조선 건물 2층)

- 아동상담 - 학습치료 · 놀이치료 · 언어치료
- 발달장애 - 통합치료 및 교육 미취학 또는 취학 아동의 예비학교
- 집단상담 - 학습능력향상 / 주의집중력강화 / 사회성 향상
- 성인상담 -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역할훈련
- 심리검사 - 자녀의 지적수준과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정서 및 학습 등에서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타임부동산

목동아파트 전문
안인근(안젤로) 조정례(안젤라)
(代)2654-1055
- 목동5단지 A상가 105호 -

태원 공인 중개사

2648-1199, 010-9889-9930
전양숙(수산나) 백문선(토마스 빌라노바)
목동 1단지 A상가 106호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 오피스텔 전문

나눔 공인중개사

2643-5050 (주, 야간 가능)
박정림(엘리사벳) H.P 010-2203-1140
목동3단지 일반상가 328동 앞 하나은행 옆

이화 공인중개사

김은숙(비아) 김현숙(아네스)
Tel : (02)2644-0043
H.P : 010-7272-7318
목동 2단지 일반상가 118호
등록번호 : 82413342

굿모닝 공인중개사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전문
매매 · 전세 · 월세 구함
2649-9200
목동APT 6단지 611동 앞 관리동 상가
김정숙(효주 아네스) H.P 011-9498-9433

온누리 공인중개사

신공웅(도미니교) 010-3253-2263
하영숙(바올라) 010-9671-2369
☎ 02-2649-5580
목동3단지 301동 앞 일반상가 하나은행 옆

- 해나리 광고안내 -

광고료 : 1호 1회 3만원 3회가 기본입니다.
광고신청 및 광고문안 : haenari0330@hanmail.net
백명애 마르가리타 011-9899-3866
계좌번호 : 외환은행 327-22-0155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꿈나무 소아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정연정(안나)
소아 중이염 원장/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클리닉
영유아 발달검사

158-055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7 광장빌딩 3층
TEL : (02)2643-8155 FAX : (02)2643-8154

강서 성모내과

- ◆ 내시경 (위 · 대장 · 수면 내시경)
- ◆ 초음파 (심장 · 갑상선 · 복부)
- ◆ 혈액 종합검사

염창동 국민은행 앞, 전화 : 3662-7585
원 장 : 김영준(펠릭스)



정관장홍삼 신월동점

TEL.02)2693-0389

양천구 신월동 535-7 로즈그린타운 1층 101호

-대한민국명품홍삼-

소중한 분을 위한 최고의 건강선물 ※ 전국 무료 택배 ※
석영근(마르티노) 018-286-8387
(주)한국인삼공사 김은숙(카타리나) 010-8889-2083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삭바삭한 베이컨치킨
고단백 저칼로리의 트랜스지방 걱정 없는 구운치킨
입니다. 목동점과 함께 하세요.
단체모임/배달 가능합니다.

김군자(마리아)

목동점: 02-2653-9282
- 309동 뒤 강서고등학교 입구 -



이 애 경 (루시아)
H.P: 010-3286-7604

TEL : (02) 2642-7604 FAX : (02) 2642-7606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0 현대파라다이스 1층 106호



공인 결혼정보사 - 초 · 재혼 · 만혼

m · 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전문 커플매니저 시스템
Tel. 1566-6205 / 02-3141-3888
H.P 010-9236-2700

대표 김 마리아

워싱턴주 시애틀 홈스테이

조기유학, 미국내전학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멀리 보내시는 마음을 같은 유학생 부모로서
이해하고 아이들이 자기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 키우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blog.naver.com/chong5335
homestayhousewa@gmail.com
070-7108-8482 / 1-425-919-3626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전화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 ★ 중고차 매매
 - ★ 신차 (국내 전 차종 및 수입차)
- (주)서안모터스 이현인(바오로)
H.P. 011-241-1212



www.edu-prime.co.kr

만 4세부터 성인까지
1:1 맞춤형 피아노 방문레슨

어드벤처피아노

성악 개인레슨, 관현악 개인레슨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

양천.구로지사 2605-0117



1:1 동행학습 → 결론은 성적!!
개인별 성적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신개념외비우스영어코칭센터 무한반복 수강시스템



목동우성아파트
상담 1599-8566
업슨애(베로니카)
010-4842-7665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20일(금) - 22일(주일)

장소 :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27일(금) - 29일 (주일)

장소 :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대상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초등부 신앙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27일(금) - 28(토)

장소 : 27일 경기도 이천 자연나라,
28일 목5동성당

대상 : 유치부 - 초등학교 2학년

청년부 여름캠프

일시 : 8월 17일(금) - 19일(주일)

장소 : 양평 SN수련원

대상 : 본당 청년 누구나